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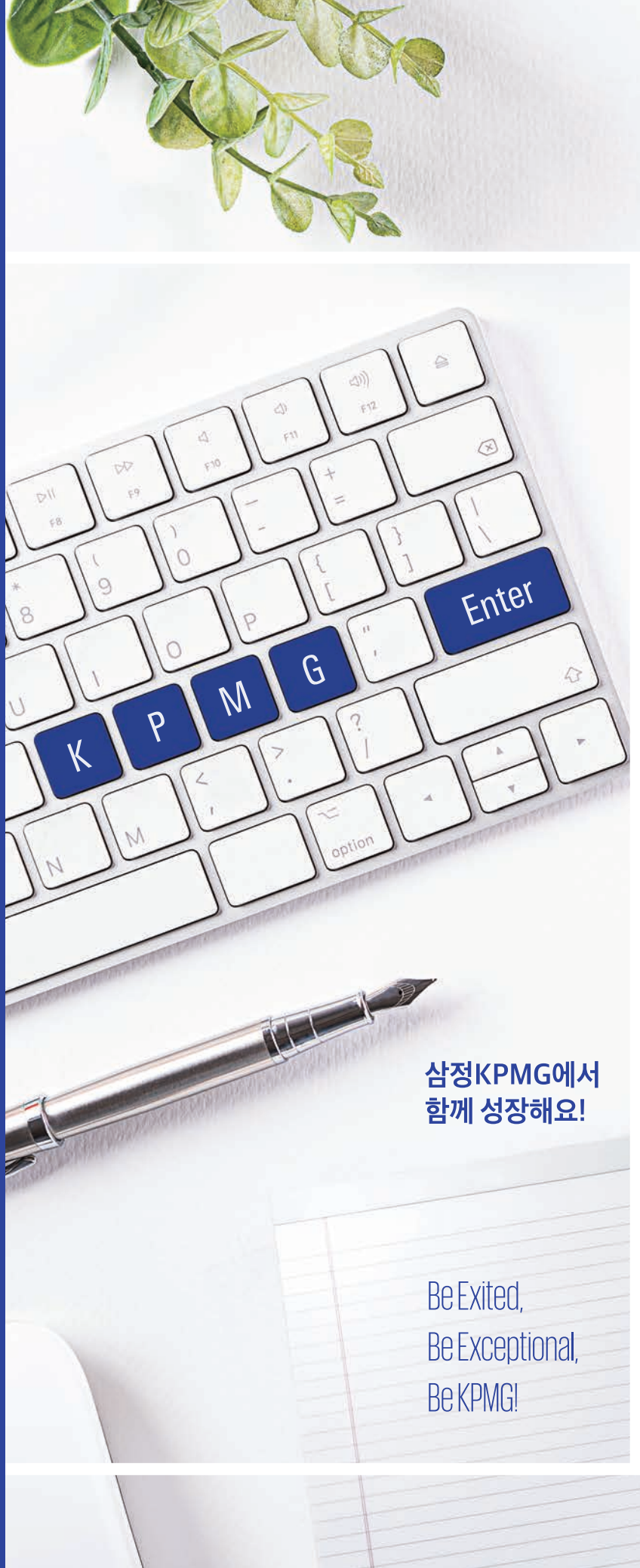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 Channel

2021  
JUNE

•  
Vol.221



삼성KPMG에서  
함께 성장해요!

Be Exited,  
Be Exceptional,  
Be KPMG!

## cover story

### 삼성KPMG 미래, 당신을 기다립니다!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  
인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나는 앞뒤를 재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 나폴레옹

삼성KPMG의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재'입니다.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No.1 전략으로 삼아,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뤄가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삼성KPMG에서 열정 넘치는 인재,  
당신을 기다립니다!



삼성KPMG Careers 사이트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Careers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04

##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CVC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06 Team Story**  
Inorganic Growth & Together Stronger  
지향하는 Deal Advisory 7본부
- 08 Client+**  
글로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  
베스핀글로벌
- 10 Market Reader**  
위기의 국내 건설사, 시공을 넘어  
'디벨로퍼'로 도약
- 12 Expert's Advice**  
코로나19 시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CFO의 역할은?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16

## 행복한 일터

- 15 KPMG Story**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오늘 나의 작은 실천은?
- 16 채용 특집 I Click! KPMG**  
삼성KPMG에서  
'Everyone a Leader'로 성장해요!
- 18 채용 특집 II 우리는 삼성인**  
삼야호! 삼성인이어서 행복해요~!
- 20 삼성별그림**  
우리 본부 & 팀, 이것이 최고야!
- 22 인재양성소**  
영어 학습 우수자를 만나다!
- 24 心 Care**  
슬기로운 공감 생활, "너도 공감할 수 있어!"
- 26 세계는 지금!**  
한국과 수교 31주년 맞이한  
체코의 비즈니스 상황은?
- 28 Samjong News**  
김교태 회장, 영상 메시지로  
전 구성원에게 새 비전 전해 하



18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 CVC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동안 국내에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 회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 등으로 인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데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CVC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오늘날 CVC 설립과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성공적인 CVC 운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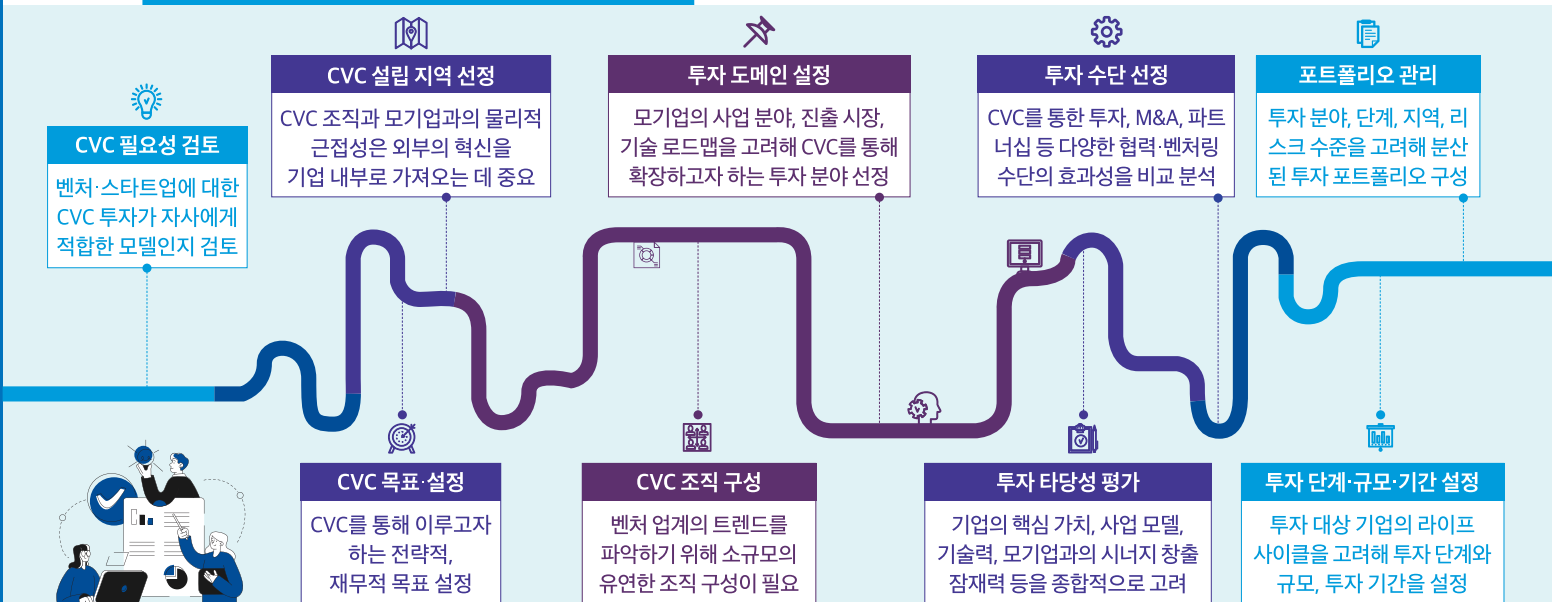
## 재조명 받고 있는 CVC

최근 기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과거 성장 전략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음을 인지하면서, 기업 벤처링의 한 수단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눈을 돌리고 있다. CVC란 일반 기업이 재무적·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의미한다.

재무적 목적은 일반적인 VC처럼 유망한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IPO, M&A, 구주매각 등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전략적 목적인데, 이는 CVC를 설립한 모기업이 벤처 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며 신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드(CB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CVC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약 731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고, 한 해 동안 약 3,300여 건의 딜이 있었다. 또한, 전체 VC 시장에서

### CVC 설립·투자 시 주요 고려사항



CVC가 주도하는 투자 비중은 2016년 20%에서 2020년 24%로 증가했다. 인텔캐피탈(Intel Capital), 구글벤처스(GV), 세일즈포스 벤처스(Salesforce Ventures) 등 CVC 투자의 상당수는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바이두 벤처스(Baidu Ventures), 레전드 캐피탈(Legend Capital) 등 중국계 기업도 CVC 투자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CVC 투자는 다소 주춤한 측면이 있다. 국내 CVC로는 카카오벤처스, 삼성벤처투자,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이 있으며, 다수는 미국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 독일 베를린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글로벌 혁신 허브에 CVC 조직을 설립하고 투자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CVC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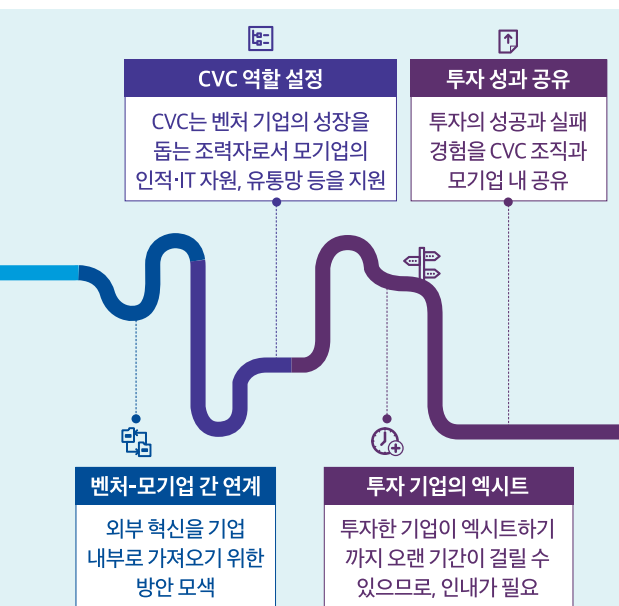
## CVC 설립·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방형 혁신의 일환으로 CVC를 설립해 업계 프론티어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안은 기업이 기존 자산과 역량을 레버리징하여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업 전략과 기술 로드맵에 따라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필요한 자원을 벤처 투자를 통해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성공 사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CVC를 설립하는 것은 기업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내부 사업이나 연구·개발(R&D)에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CVC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CVC 설립 전, 스타트업에 대한 CVC 투자가 자사에게 적합한 모델인지, 기대하는 전략적·재무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기업이 CVC 투자를 통해 확보한 외부의 지식을 기업 내부로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CVC 조직이 투자 과정에서 습득한 인사이트를 모기업 내부와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CVC 조직을 보다 비즈니스·기술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CEO, CFO, CTO 산하 직속 담당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채널 확보도 중요하다.

CVC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로 인내심과 실패에 대한 용인도를 꼽을 수 있다. CVC를 설립한 기업은 기업 내부에서 사업을 해오던 루틴을 그대로 CVC 투자에도 적용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벤처 투자는 본질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고, 기업의 스케일업 과정이 오랜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 심사역이 본인의 경험과 투자 철학을 가지고 보다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높은 리스크를 수용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CVC 조직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과 공존·상생할 ESG 경영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CVC 투자 확대로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국내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지원센터 · 김이동 전무 Tel. 02-2112-0343 / E-mail, yidongkim@kr.kpmg.com  
경제연구원 ·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02-2112-7430 / E-mail, kkim28@kr.kpmg.com

# Inorganic Growth & Together Stronger 지향하는 Deal Advisory7본부

삼정KPMG는 지난 4월 1일 Deal Advisory의 지속적 성장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Deal Advisory7본부를 신설했다. Valuation팀과 Real Estate팀이 합하여, 신설된 Deal Advisory7본부를 이번 호에 만나보고, 현재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및 방안도 살펴본다.

##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 검토하고 미리 대비해야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고, 자연스레 자산 손상 이슈, M&A 진행 시 평가 이슈가 대두됐다. 2021년 현재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의미한 실적 회복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다만 백신 보급 및 치료제 개발의 진척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존에 수립한 사업계획 달성 여부 및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불확실성이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협조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향후에는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지표를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업계, 연택트 & 고령사회 대비해야

부동산 업계에서는 '연택트 시대에 살아남을 자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자산'이 화두이다.

연택트 시대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가중시켰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라스트 마일 배송과 당일 배송 및 반품의 중요성에 따라 수도권 일대 물류센터의 폭발적인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핵심 거점인 수도권 동남권 지역 지자체들은 지역민의 민원으로 물류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며,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술과 정책, 글로벌 트렌드, 외부 변수 등을 고려하고, 조금 더 먼 미래의 유통과 물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령 선진국 일본, 독일과 같은 민간 기업들의 시니어타운 개발이 시급하다. 과거 분양형 실버 주택이 슬럼화된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준비와 시니어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형 시니어타운이 정립되어야 한다.

## Valuation & Real Estate팀이 융합해 만든 환상의 본부

Deal Advisory7본부는 Valuation팀과 Real Estate팀이 결합되어 출범한 본부이다. Valuation팀은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12년을 맞는 전문 서비스팀으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치 평가의 전체 영역 및 여러 산업에서의 업무 경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고, Deal 진행 과정부터 거래 이후까지 모든 평가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Real Estate팀 역시 Deal Advisory의 성장과 함께 약진해 온 전문가 집단이며, 파트너뿐만 아니라, 매니저 중 절반 이상이 동일 분야의 7년 이상 장기근속을 자랑하는 팀이다.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PM/LM 등 부



동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재무 분야와 부동산 컨설팅 분야의 균형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 시니어타운 등 신성장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 Deal Advisory7본부는 Inorganic Growth(비유기적 성장)를 통해 M&A 자문 및 재무 실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Deal Advisory 지속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부 구성원들과 열린 소통으로 One Team이라는 일체감을 가져, Valuation팀과 Real Estate팀의 융합적인 성장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 • Deal Advisory7본부 주요 서비스 •



Valuation Service

- 거래 지원 목적 가치평가 (Transaction Assistance)
- 적정성 평가 의견서 (Fairness Opinion)
- 재무 보고 목적 가치평가 (Financial Reporting)
- 분쟁 관련 가치평가 (Dispute Valuation)
- 감사 참여 (Specialist in audit)



Real Estate Service

- 부동산 거래 자문 (Transaction Service)
- 사업성 평가 (Feasibility Study)
- 사업 컨설팅 서비스 (Consulting Service)
- 재무 분석 (Financial Advisory)
- 프로젝트 자문 (Project Management)

## INTRODUCE

### • ‘Deal Advisory7본부’를 소개한다면?

손호승 전무  
(본부장)

hson@kr.kpmg.com



“최근 신설된 본부로서, 본부와 Service line의 Matrix조직을 지향하는 Deal Advisory 성장전략에 따라 7본부가 성장의 핵심 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본부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현경 상무  
(Valuation팀 리더)

hyunkyungjung@kr.kpmg.com



“Valuation팀은 구성원들의 독보적인 경험 및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Client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Valuation 이슈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형석 상무  
(Real Estate팀 리더)

hyungseokjin@kr.kpmg.com



“Real Estate팀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 워크, 오랜 기간의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BESPIN GLOBAL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



베스핀글로벌은 '고객이 지닌 클라우드 가능성을 깨운다'는 신념 아래 세워진 클라우드에 특화된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이다. 전략 컨설팅,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에 기반한 솔루션을 통해 많은 고객들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고 있다.

## 글로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 베스핀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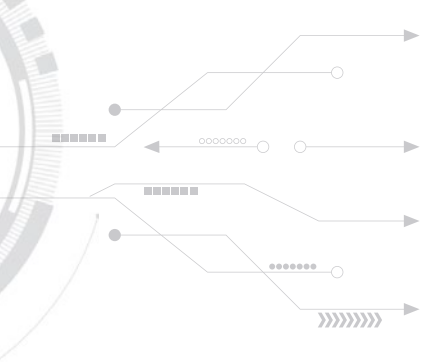
### 출범 후 매년 성장, 매출 2천억 원 돌파

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구축·운영 및 관리·데브옵스·빅데이터 등 종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CDP, Cloud Delivery Platform) 기업으로 2015년,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 출범했다. 이후, 중동, 동남아, 미국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설립 후 매년 2배 이상씩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지난해에는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성공적으로 성장한 B2C 스타트업 유니콘들 사이에서, 베스핀글로벌은 B2B를 대표하는 차기 유니콘으로 언급되며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빅 3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인 AWS(Amazon Web Services), MS Azure, GCP 외에도 네이버 클라우드,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오라클 등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CSP)들과 최상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 구축과 운영, 컨설팅을 아우르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베스핀글로벌은 현재 80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국내외 1,000여 개 고객사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돕고 있다. 클라우드 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빅데이터, AI의 구축, 운영, 고도화를 제공하고 있다. 베스핀글로벌의 자량이자 자산인 수백 명의 클라우드 전문가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스택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AWS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만 550명 이상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GCP, 알리바바 클라우드, 화웨이 클라우드 등 약 600여 건의 인증을 획득했다. 한 CSP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CSP의





인증을 획득한 멀티 클라우드 전문 인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편, 베스핀글로벌 구성원들은 지난해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및 코딩 무료 교육을 매월 1회씩 진행하며, 재능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 Cloud IT 가치를 모두가 누리도록!

베스핀글로벌은 “세상에서 가장 자동화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어 모든 기업들이 Cloud IT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비전 아래 운영되며, 공공·금융·하이테크·통신·유통·서비스·게임·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그룹, 맥도날드차이나, 페트로차이나 등이 있다.

베스핀글로벌은 자체 개발한 멀티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OpsNow(옵스나우)’를 통해 고객들의 클라우드 비용을 최대 80%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옵스나우는 운영 자동화, 비용 최적화, 분석, 모니터링 기능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관리와 운영, IT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는 클라우드 비용과 기능으로 복잡한 클라우드 관리를 자동화된 옵스나우를 사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시던트 통합 관리 플랫폼, ‘얼럿나우(AlertNow)’를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신속하게 장애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얼럿나우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인시던트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인시던트 발생,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전달, 전파), 처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 적은 인력으로도 대량의 인시던



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확한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함으로써 장애 초기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장애 복구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러한 전략적 사업 전개로 베스핀글로벌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세계적인 IT 리서치 그룹 가트너(Gartner)가 전 세계 20여 개 기업만 선정하는 ‘매직 퀘드런트 퍼블릭 클라우드 MSP’ 부문에 등재됐다. 2020년에는 최상위 그룹인 리더(Leaders)로 승격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MSP 기술력과 경험, 인적 자원을 인정받았다. 2020년 리더 그룹에 선정된 기업은 10개 사에 불과하며, 동아시아 기업으로는 베스핀글로벌이 유일하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1일, 아마존웹서비스인 AWS에서 개최하는 ‘AWS 파트너 서밋 온라인 코리아(AWS Partner Summit Online Korea)’에서 ‘올해의 마이그레이션 파트너’에 선정되며, 기술력 역시 인정받았다.



# 위기의 국내 건설사, 시공을 넘어 ‘디벨로퍼’로 도약

최근 국내 신규 택지가 제한되고, 토지 자원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제시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기업들의 수주 및 운영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디벨로퍼(Developer)로의 확장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 디벨로퍼란?

디벨로퍼는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토지나 부동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극대화시켜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땅이라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부동산의 성격을 파악하고 주변의 입지 여건, 유동 인구에 따른 수요 분석 등을 차별화된 시각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건물을 개발하는 것이 디벨로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토지의 매입, 기획, 설계, 자금조달, 마케팅, 분양·임대, 자산관리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전방위적 분야의 전문성,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업 진행 능력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며, 투자자, 시행사, 건설사 등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산업군들이 디벨로퍼 분야에 진출하며 사업 모델을 바꾸려 하고 있다.

## 새로운 디벨로퍼 시대의 개막

국내에도 디벨로퍼가 존재해왔다. 하지만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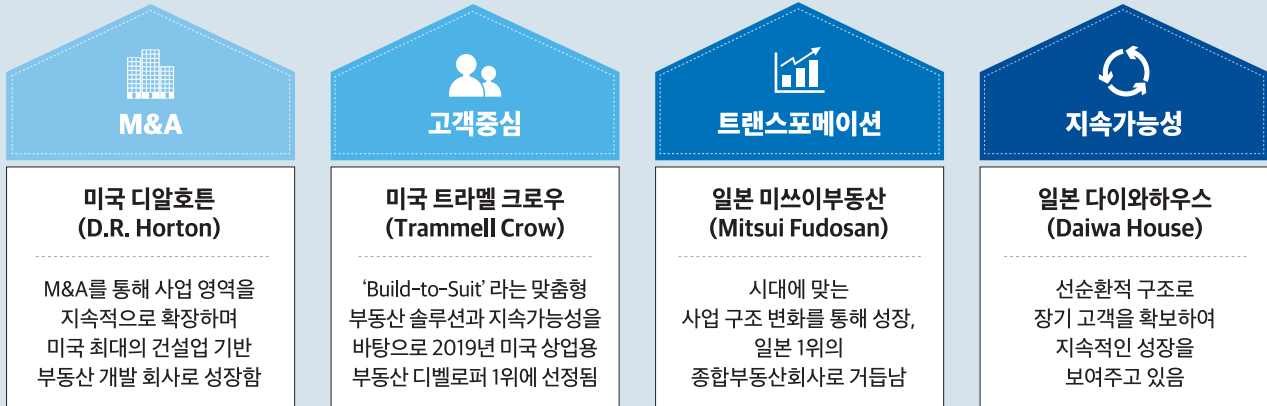
선진국과 같이 명확한 개념이 정립된 상황은 아니다. 국내 디벨로퍼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 및 건설사들은 끊임없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 디벨로퍼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 디벨로퍼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자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급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개발을 하는 1세대 디벨로퍼 모델이 등장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는 시장 위험이 커짐과 동시에 국내 건설산업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디벨로퍼)와 시공사(건설사)로 구분되어 역할을 분담하는 2세대 디벨로퍼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리츠 및 금융 부문을 인수하는 등 자본력과 노하우를 갖춘 3세대 디벨로퍼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디벨로퍼 시대가 개막됐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호텔, 오피스, 리테일, 소형 주거 등을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며 기획력과 운영 중심의 사업 모델로 변화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디벨로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보다 선진화된 미국과 일본의 디벨로퍼 사례

한국보다 먼저 부동산 산업의 성숙기를 겪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 수평적, 수직적 확장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해 왔다. 미국의 경우 디벨로퍼의 전문화를 통해 개발 분야를 다각화했으며,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안정성을 위해 부동산 개발에서

## 해외 주요 디벨로퍼의 사업 확장 전략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한 단계 더 나아가 임대 및 관리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디알호튼(D.R. Horton)은 M&A를 통해 새로운 지역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으로 사업 지역을 확장했다. 또한 보유한 4개의 하위 브랜드 운영을 통한 가격 차별화 전략으로 미국 최대의 건설업 기반 디벨로퍼로 성장했다. 미국의 트라멜 크로우(Trammell Crow)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과 고객 맞춤형 개발(BTS, Build-to-Suit) 전략으로 2017~2019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디벨로퍼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에 머무르며 정상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일본의 미쓰이부동산(Mitsui Fudosan)은 2011년 매출 과반 이상이 임대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 구조에서 2019년 임대(45%), 분양(38%), 자산관리(17%)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등 시대에 맞는 사업 구조 변화를 통해 일본 1위의 종합부동산회사로 거듭났다. 일본의 다이와하우스(Daiwa House)는 단기적인 개발 후 분양의 모델이 아닌 임대-관리-개선 피드백까지 제공하며 추후 재개발 시

에도 다이와하우스가 선정될 수 있는 선순환적 모델을 구축해 장기 고객을 확보했다.

### 디벨로퍼의 미래

디벨로퍼는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 창출과 장기적 임대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벨로퍼들이 토지를 확보하며 부동산 개발을 확대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국내 디벨로퍼들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동산 분야에서의 개발 능력을 견비하고 상품군을 늘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 M&A 및 제휴를 통해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산업 내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단기 수익에 집중한 분양 위주의 사업 모델로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선순환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즉 디벨로퍼로의 전환이 지속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 CONTACT US

#### 건설산업 리더 임근구 전무

Tel. 02-2112-0814  
E-mail. gleem@kr.kpmg.com

#### 경제연구원 박도휘 수석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 코로나19 시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CFO의 역할은?

코로나19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에 대한 기대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시장의 관심을 받는 기술 중심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할은 무엇일까?  
삼정KPMG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 Q1 코로나19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코로나19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으며, 이는 투자 흐름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주요 분야별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금액 비중은 정보통신기술(15.8%), 금융서비스(13.9%), 바이오 헬스케어(13.3%) 순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16.3%), 정보통신기술(11.5%), 금융서비스(8.7%) 순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중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관련 투자가 눈에 띄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사회 경제적 영향과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올 수 있다는 우려로 향후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2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CFO가 가져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CF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CFO는 회계 재무 부서의 관리 영역을 넘어 사업전략 수립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거치는 인허가 등에선 기술과 기능이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인 판매를 위한 마케팅, 유통망 확보, 투자 유치 등에선 재무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CFO는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R&D 단계 투자유치를 할 때 기술의 탁월함만 강조해선 시장을 설득할 수 없으며,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기술의 가치를 재무적으로 전환하고 다루는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 가치를 재무로 전환해 시장과 소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의 소통도 중요하며,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CFO는 초기 단계의 투자유치와 IPO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의 이벤트로 여기고, 조직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를 통해 내부 투명성을 다지고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IPO를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과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CFO들을 통해 재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SCG본부 박경수 상무

Tel. 02-2112-6710

E-mail. kyungsoopark@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4월 12일 게재된 환경 CFO Insight 'CFO, 기업과 시장 잇는 가교(架橋) 역할 해야'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새로운 시사 및 경제 상식을 배워보는 '맛있는 경제'.  
이번 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MZ세대를 위한 보험 상품에 대해 살펴본다.

## ✓ 데이터 댐 (data dam)



데이터 댐은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댐처럼,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즉, 물이 댐에 모여 방류되듯,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류, 가공하여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를 결합해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가공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교육, 제조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에 2025년까지 18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8만 9천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 미니보험



일반적인 보험상품 대비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 기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소액의 보험료를 특징으로 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에 출시된 미니보험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의 디지털 친화적인 활동 환경과 금융 소비 특성에 특화되고 있다. 미니보험 소비자는 특정 질병 혹은 신체 부위만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의 단순한 보장 범위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일상 속 여러 위험을 부담 없는 보험료로 단기간 보장하는 미니보험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규모, 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사 설립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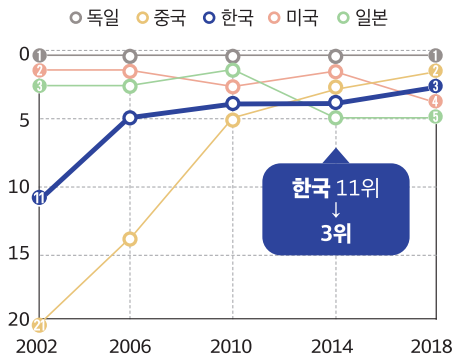
출처: 연합인포맥스



## 한국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위기 속 경제 버팀목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랐다. 한국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서 152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것이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CIP 순위 추이 CIP: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Source: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Note: 2018년 세계 152개국 중

행복한 일터

# HAPPY WORKPLACE

## KPMG Story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오늘 나의 작은 실천은?

## 채용 특집 I Click! KPMG

삼성KPMG에서 'Everyone a Leader'로 성장해요!

## 채용 특집 II 우리는 삼정인

삼야호! 삼정인이라서 행복해요~!

## 삼정별그림

우리 본부 & 팀, 이것이 최고야!

## 인재양성소

영어 학습 우수자를 만나다!

## 心 Care

슬기로운 공감 생활,  
“너도 공감할 수 있어!”

## 세계는 지금!

한국과 수교 31주년 맞이한  
체코의 비즈니스 상황은?

## Samjong News

김교태 회장, 영상 메시지로  
전 구성원에게 새 비전 전해 外



#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오늘 나의 작은 실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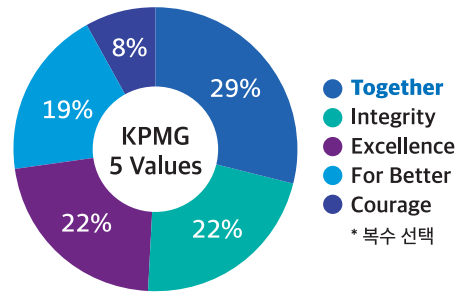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KPMG Value에 대해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KPMG Story’. 이번 호에서는 우리의 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Value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있나요?

*‘Together’*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삼정인들은 어떤 Value를 실천하고 있을까? 삼정인들은 ‘Together’를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가치로 꼽았다. 총 49명의 삼정인이 참여한 이번 이벤트에서 ‘Together’가 29%, 이어서 ‘Integrity’와 ‘Excellence’가 22%, ‘For Better’는 19%, ‘Courage’는 8%를 기록했다.



이수현 S.Senior (B&F3)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중요한 건 ‘공정함’이라고 생각해요! ‘Integrity’,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된 감사는 감사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해요.



김보경 S.Consultant (Digital Tech)



급변하는 환경에서 컨설팅, 감사를 수행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분석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야 해요.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 의미를 전달하도록 ‘Courage’있게 진취적이고, 담대한 생각과 행동이 필요해요.



이현수 Manager (Tax6)



아픈 환자를 의사가 치료하듯, 우리는 고객에게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생각해요. 아는 만큼,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객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해요. 그래서 ‘Excellence’를 택했어요.



김용철 Analyst (Deal Advisory6)



더 나은 세상이란 행복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는 세상 아닐까요? 미국 교환학생 시절, 잘 적응할 수 있던 건, 모르는 이에게도 웃으며 인사하는 미국의 문화 덕분이라 생각해요. 바쁘지만, 웃으며 인사하는 습관이 존중과 다양성의 강점을 이끌어 내는 ‘Together’의 작은 시작이라 생각해요.



원창일 Senior (ICE2)



지구는 인간에 의해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어요. ‘For Better’,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지구 오염을 줄이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저는 제출할 자료가 아니면, 이면지로 인쇄를 해요. 이면지를 사용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지구 살리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껴요!



채용 특집 I

# 삼성KPMG에서 ‘Everyone a Leader’로 성장해요!

삼성KPMG가 2021 신입회계사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 이에 이번 호는 채용특집호로 진행, ‘Click! KPMG’에서는 삼성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려 한다. ‘Everyone a Leader’를 지향하는 ‘행복한 일터’ 삼성KPMG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 Everyone a Leader!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

법인 입사와 동시에 Professional Auditor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Learning Track을 3년간 스스로 설계하는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Global Elite Program(GEP)’에 입과 한다. 신입회계사 입문, 직무 교육, CPA 기본 및 외감 실무, Communication 스킬 및 제안서 작성 과정, Professional Judgement 등 각 연차에 맞춘 체계적인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년간의 주니어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성적우수자에게는 법인 대표가 주관하는 시상과 함께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신입회계사 입문교육

## 영어 교육 및 해외 연수로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 인재 성장에 필수 사항인 어학 역량 향상을 위해 KPMG Global에서 채택한 글로벌 교육기업 EF(Education First)가 제공하는 어학 프로그램을 FY19부터 삼성KPMG 공개 신입회계사에게 입사 시 3개월(10~12월) 및 1년 차에는 8개월(5~12월) 학습에 대해 100%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사 직무교육 성과와 한공회 연수 성적, 업무 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GEP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성인을 비롯하여 S.Manager 승진자 전원에게 해외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2주간의 유급휴가 및 포상금 등으로 대체 운영 중이며, GEP 우수자들에게는 제주 연수, 강점 코칭 및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해외 연수 기회 제공

## 다양한 커리어 기회 본부 이동 제도와 해외 파견

구성원들의 다양한 커리어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부 이동 제도인 ‘NCP(New Challenge Program)’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Member Firm 및 Korea Desk 파견 근무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의 해외 업무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 23개 KPMG 오피스에 30여 명이 파견 중이다.



해외 파견 근무 기회 제공

## 새로운 근로제도 ‘재량근로제’

업계 최초로 법인의 공동근로자 대표들과 유연근로제 도입 합의를 이끌고, 시행 중이다.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 중이며, 충분한 휴식과 금전 보상을 제공한다.



재량근로제 도입





## 워라벨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복지 제도 마련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행복한 일터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타 본부원과의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해 점심, 저녁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삼삼오오', 동료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취미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Talk+Play+Love'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볼 때 선물 비용을 지원하는 '부모님을 뵙니다', 자녀의 학급에 간식을 제공하는 '아빠&엄마가 간다', 특별한 날 법인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리무진 서비스', '결혼 5주년 기념' 및 '초등학교 자녀 입학 선물', '어린이집 보육비' 등을 지원하며 삼정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전문 심리 상담 사에게 마음 건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心 Car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Talk+Play+Love: 클라이밍

## 복지카드 및 단체 보험

입사 3개월 이후부터 자기계발, 문화/레저, 건강증진 등을 위해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BLSP(Beautiful Life in Samjong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재해사고와 질병에 대해 포괄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 오피스, 휴게 라운지 그리고 사내 식당

임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공간에서 자유로운 사고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했다. 또한, 업무 중 심을 통해 Refresh 할 수 있도록 임직원 휴게 공간인 숲, 바다, 강, 하늘, 호수, 은하수 등의 휴게 라운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영양만점 식사를 제공하는 사내 식당 '정원'을 통해 일부 식비를 지원 중이다.



스마트 오피스

## 취미 공유 및 친목 도모 위한 사내 동호회

구성원들의 여가생활 지원과 소통 및 친목 도모를 위한 9개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마라톤, 자전거, 트래킹 등 스포츠 동호회는 물론, 다양한 장르의 댄스를 소화하는 댄스 동호회와 지식을 나누는 독서 동호회도 운영 중이다.



사내 동호회: 축구

## 아름다운 동행,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 환경, 예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봉사 참여와 법인 기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고,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파란행복'을 설립하여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랑나눔 활동

## 채용 특집 II

# 리크루팅 TF 멤버 3인방을 만나다 삼야호! 삼정인이라서 행복해요~!

삼정KPMG 입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최연주 Associate (CM1)

열정이 가득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에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되어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어요.



장혁준 Associate (IM4)

## 삼정KPMG가 좋아서, 소개하고 싶어서!

**최연주** 2년 차 회계사인 제가 리크루팅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법인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 예비 삼정인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법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장혁준** 저는 입사를 준비하는 신입 회계사분들을 가장 먼저 만나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아직 1년 차이지만, 제가 경험한 법인 생활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죠.

**민은지**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전 삼정KPMG의 일원으로서, 리크루팅 활동을 하며 법인을 소개할 때 뿌듯했고 스스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올해에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바로 참여하게 됐죠!

## 우리 법인 장점? 차고 넘치죠!

**최연주** 2년 전, 삼정KPMG 입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채용을 준비하면서 삼정 KPMG 선배님들이 따뜻하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받았어요. 당시 채용설명회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법인'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직접 말씀을 나눠보니 그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하. 특히, 회계법인은 보수적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우리 법인처럼 수평적인 조직은 없는 듯해요. 팀원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장혁준** 맞아요, 사람을 중시하는 법인이란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저는 성장을 이뤄가는 법인이기에 망설임 없이 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법인의 일원이 되어 우수한 회계사님들과 성장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열정이 가득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에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되

본격적인 신입회계사 공채를 앞두고 미래의 삼정인을 찾아 나선 리크루팅 TF 멤버들.  
이번 호에서는 리크루팅 TF 멤버, 1~2년 차 회계사를 만나 삼성KPMG에서 경험한 솔직담백한  
스토리와 리크루팅 활동에 대한 각오를 들어본다!



Refresh 제도, 최신  
스마트 오피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등 행복한  
일터로서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민은지 Associate (ICE2)

어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어요.

**민은지** 저는 행복한 일터라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Refresh 제도, 최신 스마트 오피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등 행복한 일터로서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 제가 최고로 꼽고 싶은 것은 바로 소통이에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부족한 점도 많은데, 선배 회계사님들께서 모르는 부분을 잘 설명해주시고,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원활한 소통을 통해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라고 말하고 싶어요.

### 예비 삼정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은지** 저는 1년 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때문에 예비 삼정인들은 저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리크루팅 TF 멤버들과 함께한 채용 영상은  
삼성KPMG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본 영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연주** 우리 법인에 입사하게 되면,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성장하시길 바란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저도 예비 삼정인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조연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장혁준** 저 역시도 우리 법인에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 법인에 입사하실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싶어요. 이번에 운이 좋게 채용 홍보 영상에도 참여했는데, 영상에서 잘 봤다고 아는 척 해주시면 커피 쓸게요! 하하. 사회 첫 시작을 행복한 일터, 삼성KPMG와 함께하세요! 응원할게요. 파이팅!

# 삼정인의 자랑 타임! 우리 본부 & 팀, 이것이 최고야!

수평적 조직 문화와 자유로운 소통을 추구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삼정KPMG. 이번 호에서는 '삼정별그림'을 통해 삼정인이 느낀 우리 본부 혹은 팀의 자랑거리를 들어보려 한다. 경험을 통해 진심 100%의 마음을 담아 소개하는 삼정인들의 본부 & 팀 자랑거리를 살펴보자.



**동기들과 우애를 돈독히!  
좋은 사람이 가득한 우리 본부**

임준해 Senior (Tax3)



Tax3본부는 사진으로 보이듯이 동기들끼리 함께 나란히 앉아 근무해요! 때문에 점심식사 또는 야근시 동기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업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동기들끼리 옆에서 서로 의논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또한 파트너 담임제, 멘토-멘티, 카운셀러 제도 등 본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후배 간의 교류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 주기적으로 식사도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제 곧 만으로 3년 근무하게 되는데 본부원 모든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 즐겁게 근무하고 있네요. 우리 TAX 3본부 파이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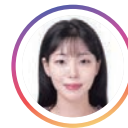
**눈치 No!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

이동익 Associate (B&F3)



솔선수범하는 인차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는 서브 인차지, 분위기 메이커 S.Senior, 착하고 상냥하게 고민을 들어주는 S.Senior, 성실하고 능력 있는 동기,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해오는

Associate. 우리 팀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강제 야근 없고 약속 있으면 먼저 말하고 퇴근해도 전혀 눈치 보지 않아요. 동기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며 편안한 분위기인 우리 팀을 자랑합니다!



**배움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팀**

표은송 S.Analyst (Deal Advisory4)

팀장님(Cho 차장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면서도 언제나 팀원들의 편의와 근무 조건을 신경 쓰려 노력해주세요. 모든 팀원들 역시 배움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힘들게 야근을 해도 언제나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화목한 우리 팀**

**고대원 Associate (IM3)**

가족과도 같은 IM3 현대자동차팀을 소개합니다. 우리 팀은 다양한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재미있는 팀이에요. 친



구 또는 가족처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외로운 팀원에게는 서로 지인을 소개해주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서로 축하해줘요.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이유는 IM3본부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위승훈 부대표님, 남상민 전무님, 김현석 이사님, 그리고 팀원 개개인을 가족처럼 챙겨주는 엄마 같은 인차지 두 분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가족처럼, 친구처럼 행복한 우리 팀 파이팅입니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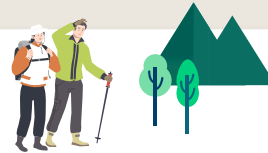
**권상원 Analyst (Deal Advisory2)**



Deal Advisory2본부의 환상의 팀워크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김성운 이사님은 함께 일 하면서 스태프들의 의견도 항상 청취하고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업무 특성상 야근도 많고 힘든 업무들이 있지만 Together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 가며, 서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팀장이신 서무성 상무님부터 항상 Integrity, Excellence 등을 모티브로 훌륭한 업무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시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며, For Better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usy 시즌에도 웃게 하는 우리 팀!**



**황지영 Associate (CM2)**

환상의 팀워크, 자유로운 소통,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언제나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우리 팀을 자랑할게요! 우리 팀은 Busy 시즌 중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팀 모두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시기에는 등산이나 볼링, 한강공원 나들이 등 활동적인 취미활동을 함께 할 만큼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해요. 지난 5월에는 지방 출장 중에 휴일을 이용해 경상남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물론 방역 수칙도 잘 지켜가며, 통영에서 루지도 타고 거제식물원, 해수욕장을 방문해 업무로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팀원들과 좋은 추억을 쌓기도 했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 고단한 업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차지님과 우리 팀원들을 자랑하고 싶네요.



# 글로벌 인재라면, 영어는 기본! 영어 학습 우수자를 만나다!

삼성KPMG는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본 소양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임직원들에게 EF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에게는 학습 비용 50% 지원을 신입 1년 차에는 100%의 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FY2020 EF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우수 학습자를 만나보았다.

최우수학습자 꿈 이뤄!

## 영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힘!

FY20 영어 학습 최우수자



이정훈 Manager  
(Deal Advisory4)

### Q. 최우수자에 선정된 소감은?

제가 최우수자에 선정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매우 기쁘네요. EF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가 같은 팀에 있는 이정호 부장님이 예전에 EF 프로그램 최우수자에 선정되어, 2018년 3월에 시카고 EF 스쿨에 일주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부장님을 통해서 EF 학습 프로그램의 존재와 학습우수자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 경험을 듣고 도전해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비록, 코로나19로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Hult Ashridge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십 및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Q. 본인만의 영어 학습 노하우는?

매일 EF 프로그램에 접속하려고 노력했어요. 일과가 끝나고 집에서 학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학습 도중에 종료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강의 하나라도 학습하려고 했어요. 정말 학습을 못 하는 날에는 잠깐 학습 창에 들어가서 학습자 Ranking이라도 봤어요. 그러면 순위 경쟁심이 생겨서 그날은 쉬어도 다음날은 학습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 같네요. 하하.

### Q. 영어 학습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원어민 강사와 일대일 회화 기회가 자주 주어지다 보니 영어를 쓰는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연히, 외국계 고객과 컨퍼런스 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회의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 Q. 앞으로의 목표는?

강제성이 없으면 또 영어 학습을 중단하게 되어서 이번에 최우수학습자 포상으로 제공된 Hult Ashridge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학습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 진정되면 해외로 나갈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날까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네요!

해외 파견 꿈 이루고자 시작!  
**흥미 있는 주제로  
 지루하지 않게 공부해**

FY20 영어 학습 **우수자**



우승완 S.Manager  
 (CM1)

**Q. 학습 우수자에 선정된 소감은?**

저는 해외 파견의 꿈이 있어 EF를 수강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었고, 실제로 어학 능력에 큰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EF 우수자에 선정된 기회도 얻었네요!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법인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 이외에도, 변화하는 회계기준과 감사환경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는?**

EF는 시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어, 업무나 개인 일정에 계획해서 학습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 전에는 1단원을 학습했고, 퇴근 후에는 일정에 맞춰 말하기 공부 및 일대일 학습을 했어요. 무엇보다 EF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흥미 있는 주제를 찾아 학습해, 지루하지 않게 영어 공부할 수 있었어요.

**Q.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감사업무 수행 시 해외 부문 감사인 등과 주기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어요. EF 영어 프로그램을 학습하면서 배운 메일 작성, 비즈니스 영어 등은 업무상 필요한 여러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영어의 감을 잃고 싶지 않아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영어 교육으로  
 실력 향상!**

FY20 영어 학습 **우수자**



박도훈 Analyst  
 (Deal Advisory4)

**Q. EF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꾸준한 영어 공부를 통해 영어에 대한 감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던 중 법인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학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을 뿐인데 우수자로 선정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Q. 본인만의 학습 노하우는?**

주로 약속이 없는 주말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게 되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영어 학습에 쏟게 된 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영어 학습은 산업 리서치 시 영어 자료를 활용할 때 큰 도움이 되었죠. 아직 크로스보더 업무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Q. 삼정인들에게 EF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개인적으로 EF 프로그램에서 스피킹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기에 추천하고 싶어요. 우선, 선생님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악센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일대다 대화에서도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꼭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수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급작스러운 야근 때문에 학원을 가지 못해 돈을 날리는 경험도 없어요. 하하.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단활동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요즘 화상으로 안전하게 수강하는 EF 프로그램은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 슬기로운 공감 생활, “너도 공감할 수 있어!”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타고나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공감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상대방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쓱쓱해주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면 운동을 배우듯이 공감 기술을 익혀두는 것도 좋다. 이번 호에서는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실제 가까운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가짐과 일종의 ‘공감기술’을 안내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부인이 저에게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공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법 책이랑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그랬구나, 네가 정말 화가 났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면 된대서 그대로 말하며 공감했더니 부인이 ‘어디서 시같은 영혼 없는 반응을 배워왔냐’며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하는 게 공감인가요? 부인이 회사 팀장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전 하나도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거든요. 저는 그냥 부인이 말하는 상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서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다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서 국어책 지문처럼 ‘당신이 정말 힘들구나’라고 말하자니 너무 가식 같고, 외국 영화 성우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색해요. 대체 공감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공감에 대한 편견

공감과 관련한 여러 편견이 있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이 힘든 얘기를 하면 무조건 편을 들어 주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줘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 때문에 평소에 감정 표현이 절제된 사람들은 더욱 공감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그저 듣기 좋은 사탕 발림 말을 해주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위로에 불과하다.

또, 집단주의 특색이 강한 문화권일수록 이야

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호들갑스럽게 무조건 맞다고 해줘야 하는지, 혹은 고민해결사처럼 그럴싸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것인지 등의 압박감들이 ‘진짜 공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 인지적 공감의 필요성

상담실을 방문하는 분 중에 “저는 타고나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 슬픈 경험을 아무리 듣고 있어도 눈물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공감 능력이라기보다는 정서적 감수성에 가깝다. 정서적 감수성, 민감도 등 감정



소통 능력 중 일부는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공감 능력은 충분히 기를 수 있다. 스스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의 이야기가 '인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줄거리 개연성이 떨어지는 영화에는 쉽게 몰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감정적인 공감을 떠올리는데, 실제 공감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지적인 공감이다. 줄거리를 잘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 영화에 감명받듯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상황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인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랬어?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OO 상황이 왜 생긴 거야?”와 같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게 유의하며’ 물으면 된다. 더 잘 이해하고자 질문을 하는 의도는 상대방에게도 느껴지고, 자신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자체로 위안이 될 때가 많다.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하던 사람도 상황을 재정리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그 후에는 느껴지는 마음을 그저 담담하게 전달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답답하겠네”, “너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제야 알겠네”와 같은 말로도 충분하다.

## 감정에 공감하는 것과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은 말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듣는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없다. 단지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간혹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동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정에 공감해줍니까?’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감정까지만’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행동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의 타당성이 행동의 타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담백한 공감을 위해서

글 도입부에서 소개한 사례에서 아마 아내는 남편의 ‘당신이 정말 힘들구나’와 같은 말 자체에 화를 낸 것은 아닐 테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사람은 알기 마련이다.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공감 반응을 보인 남편의 말에 아내가 기분이 상했던 것은 아닐까? 기계적인 영혼 없는 멘트보다는 충분한 인지적 이해를 동반하는 것이 공감 기술의 핵심이다. 상대



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대충 공감해주는 척하고 빨리 이 대화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 이것은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입장에서의 욕구이자 내 마음일 뿐이다. 이런 나의 마음은 일단 뒤로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음을 이해해주자.

## Profile

###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한국과 수교 31주년 맞이한 체코의 비즈니스 상황은?

올해로 한국과 체코는 수교 31주년이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과 체코의 관계는 괄목할만한 새 도약을 이뤄가고 있다. 2019년 기준 양국 교역은 3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고, 자동차 부품 협력사 및 관련 기업 62여 업체들이 진출해 한국은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체코의 3대 투자국이 됐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와 협력을 이뤄가는 체코의 비즈니스 상황을 체코 Korea Desk의 황현동 Director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글. 체코 Korea Desk 황현동 Director  
E-mail. hhhwang@kpmg.cz Tel. +420 725 515 452



## 코로나19 감염률 지속 감소, 2분기 이후 경제 활동 회복될 것

체코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섰다운 및 이동 제한 조치, 필수 생필품 상점을 제외한 영업 제한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조치와 더불어 물류 이동의 제한으로 필수부품의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이는 생산량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감면, 납부 유예 등의 조세 지원 정책과 섰다운 등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는 안티바이러스 프

그램(Antivirus Program) 등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역 조치의 성과 및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규제조치 완화 및 5월 이후 예상되는 유로존 자유 이동이 시작되면 2분기 이후로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지연이나 규제조치 완화로 인한 추가적인 팬데믹 발생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

## 전기차, 자율주행 등 E-mobility 산업 분야 성장할 전망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완성차 및 부품 협력사 등 자동차 산업 기업들이 다수이다. 이에, 기후 환경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체코 정부는 대표적인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에 발맞춰 친환경 미래 자동차를 중심으로 에너지원 및 교통 분야 탄소배출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구입비용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전기차, 자율주행 등 E-mobility 산업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코 내 친환경 자동차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EU의 배기가스 규제강화 조치 등으로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신규 등록 대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 연합의 2020년 전기차 시장은 133만 대로 성장했으며, 125만 대인 중국 시장을 제치고 최대시장으로 부상했다.

###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 중, 투자 인센티브 분석 필요해

체코는 2000년대 들어 유럽 시장을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활용됐으나, 최근 체코 정부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정부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 내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체코에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는 R&D,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도 개정했다.

또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요건이 추가되고,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됐으므로 체코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요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주요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10년간 법인세 면제 및 최대 25%의 투자보조금이 있다. 이와 함께 고용 창출 보조금, 산업단지 내 부동산 세금 면제가 있다. 체코는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에 동등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한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투자의 경우, 체코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며,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신규 고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투자, 테크놀로지 센터(R&D), 비즈니스 지원 센터(소프트웨어·IT 개발, 데이터센터, 하이테크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된다.



1. 체코 원전 포럼에서 한수원 담당자와 함께
2. 동료들과 함께 회의 중 기념 사진을!
3. 비대면 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 체코 Korea Desk



KPMG 체코는 Big4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프라하, 오스트라바 등 4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약 1,1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회계, 세무, 컨설팅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KPMG 체코의 Korea Desk는 2006년 설립되어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의 체코 투자 및 넥센타이어 신규 공장 설립 등 한국 기업의 체코 진출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KPMG 체코는 법인설립 및 투자 인센티브 분야에 강점을 지닌 곳으로, 대부분의 한국 법인들에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서비스와 세적 등록, 투자인센티브 등의 세무 서비스를 포함한 설립 절차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후 자연스레 회계 감사 및 법인세 신고, 이전가액 컨설팅 등의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체코 Korea Desk는 설립 이후 체코 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코 Korea Desk  
황현동 Director



# Samjong News

## ‘Vision 2020’ 자랑스러운 성취와 ‘Vision 2025’의 새로운 도전 김교태 회장, 영상 메시지로 전 구성원에게 새 비전 전해

삼정KPMG가 ‘Vision 2020’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하고, ‘Vision 2025’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포부를 밝혔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전 구성원에게 그간 걸어온 ‘Vision 2020’을 되돌아보고, ‘Vision 2025’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힘찬 시작을 알리고자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다.

삼정KPMG는 지난 FY2016에 총 사업수익 6,000억 원, 업계 Big2를 목표로 ‘Vision 2020’을 선포한 바 있다.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 6,288억 원

을 달성함으로써 ‘Vision 2020’의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변화의 흐름과 고객의 니즈(Nee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를 선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Function이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 비전 달성을 견인했다. 이와 함께 인재를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를 일구고, 회계 업계를 올바르게 선도하면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성취로 얻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Vision 2025’를 향한 더 큰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정KPMG는 자랑스러운 성취를 함께 만들어 온 임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했다. 삼정KPMG는 앞으로 사업수익 1조 1,000억 원, 업계 No.1을 목표로 하는 ‘Vision 2025’를 위해 희망찬 도전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삼정KPMG SCG본부, 고객사 ‘풍산’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삼정KPMG SCG본부 국제통상부문 박원(EP), 박영기(EM), 강경호(In-charge) 및 팀원(김재환, 정수연, 이다슬, 정윤정)은 고객사 풍산으로부터 ‘인도향 한국 및 태국산 동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대응 건 업적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삼정KPMG는 Sincere Partner로서 고객사 통상 TF와 전략적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한국산은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및 태국산은 타 국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결정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풍산은 인도 시장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가격상승을 통한 수익성 증대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 ‘알.쓸.산.지’, 글로벌 CVC 주제로 열려



지난 5월 13일 ‘글로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동향 및 투자 전략’을 주제로 ‘알.쓸.산.지’ 강연이 진행됐다. ‘알.쓸.산.지’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 산업 전문가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신 산업 트렌드 및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전달하는 강연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김기범 선임 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강연에서는 CVC의 개념 및 국내, 해외 CVC 투자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489개 글로벌 CVC의 운영 현황과 투자 포트폴리오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 CVC 투자를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도 제시됐다.

## ‘삼정포럼’, 경희대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 강연 나서

삼성KPMG는 지난 5월 12일 역삼동 삼성KPMG 본사에서 삼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가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Think 4.0’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기술, 명성이 아닌 ‘생각의 차이’로, 현대는 ‘Think 4.0’ 시대라고 설명했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며 ‘역발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삼정포럼은 삼성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명사의 강연을 진행해 그들만의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전하는 포럼이다.



## ‘삼정톡톡’, ‘어떻게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주제로 열려



지난 5월 18일 삼성KPMG는 아주대 정신의학과 조선미 교수를 초청해 ‘어떻게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를 주제로 ‘삼정톡톡(삼정 Talk! Talk!)’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자존감 높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조 교수의 명쾌한 솔루션이 제시됐다.

# Samjong News

## GEP 11기 우수자 강점 코칭 워크숍 개최



삼정KPMG는 지난 5월 20일 GEP(Global Elite Program) 11기 우수자 36명을 대상으로 강점 코칭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GEP 11기 우수자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리더로서의 성장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선배 멘토 12명과의 만남을 통해 멘티들에게 성장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GEP는 전문가로서의 직무역량과 글로벌 마인드, 전문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Junior 육성 프로그램으로 삼정KPMG는 매년 GEP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 이만우 ACI 자문 교수, ESG 주제로 아카데미 강연 참여

삼정KPMG ACI 자문 교수인 고려대학교 경영대 이만우 명예 교수가 '삼정KPMG 아카데미'의 정규교육과정 내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Special Topic'의 강연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화두 중 하나인 'ESG 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ESG 경영 등장 배경 ▲ESG 구성 요소 및 전개 과정 ▲ESG의 평가와 공시 ▲ESG 경영의 과제 ▲재무적 측정 대상 확대 방안 등 ESG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만우 교수의 전체 강연은 '삼정KPMG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 여성 임직원 네트워크 'KNOW' 상반기 특강 진행



삼정KPMG 여성 임직원 네트워크인 KNOW(KPMG Network of Women)가 지난 5월 21일 상반기 특강을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방송인 유인경 기자가 연사로 나서, '회사가 인정하는 여자들의 비밀'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유 기사는 리더는 타인에게 질문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등 나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겸손해야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생색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모든 것에 흠뻑 기뻐하며, 가볍고 경쾌하게 항상 마음의 풍경을 가꾸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정복하기!

### 특집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살펴보기

지난 4월에 런칭한 '삼정KPMG 아카데미'는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슈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회계, 감사 전문가들에게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정규교육과정'은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①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과 ②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려 한다.

정규교육과정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新외감법에 따른 회계 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위한 운영 전략을 제시한다. 본 교육 과정은 크게 ▲입문 과정,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입문 과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구축 및 운영, 그리고 평가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심화 과정에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을 주제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삼정KPMG 아카데미**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입문 과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과 구축/운영 및 평가 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을 다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제도적 변화와 영향,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평가 개관, IT 통제 감사 기본이해 및 고려사항 등 총 4가지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심화 과정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잠재 이슈와 해법을 공유하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삼정KPMG 아카데미' 관련 문의: BD&Markets 박혜경 이사 (hyekyungpark@kr.kpmg.com)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http://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